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분류

김민경

2022. 12.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 집행정보분석부

작 성 **김민경** 부연구위원

자료지원 **이동형** 과장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analysis@kpfis.kr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사업의 집행관리에 있어 각 사업 유형별 집행을 점검 및 정책지원을 위한 데이터 추출을 통한 자료 분석이 필요
 - 재정사업의 집행이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정부는 정치적·정무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함
 - 재정사업의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dBrain+상에서 재정사업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속성정보의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적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함
 - 시스템상으로 재정사업 유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의 계층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각 재정사업별로 적정한 속성값 체계를 설계하고 그 속성값을 적정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이전 시스템과 비교하여 속성값이 재정사업 유형 분류에 있어 얼마나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도 존재
-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생산에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상의 사업 속성정보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시스템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

- 재정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재정사업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 dBrain+ 시스템상의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dBrain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 향후 dBrain+ 시스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정보 수요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속성정보 설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재정사업 유형 분류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기본 구조는 2007년 도입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함

-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재정운용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통제 중심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한 제도임
 - 20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16개 분야, 74개 부문, 656개 프로그램, 2,767개 단위사업, 8,4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dBrain+상에도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따라 부문-분야-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준으로 계층화되어 있음
 - 재정통계의 생산 및 재정정보 활용의 기본단위는 세부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기반하고 있음
- 재정사업의 분류는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정보의 활용 및 재정통계 작성과 생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임
 - 재정사업의 세부적인 구분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며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의미함

□ **기능별 분류는 국가 재정활동의 기능을 크게 교육, 국방,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부문으로 세분하는 방식임**

- 2022년 기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16개 분야, 7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사업을 지출별로 기능을 구분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OECD는 UN이 제시한 정부기능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의하여 10개 분야, IMF는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의하여 13개 분야로 구분

□ **경제 성질별 분류는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과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 2022년도 기준 세출과목 구분은 24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9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사업을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이전지출 등으로 대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세목을 부여한 것으로 시스템상으로 고유성질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품목별 분류라고도 함

□ **정책 기반 사업분류는 재정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주요 목적은 재정사업을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된 재정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특정 정책의 효과나 집행 현황을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기된 정책하에서 소관과 부문 분야 등을 통합하여 연관성에 따라 군집화되어 집계
 - 생활 SOC사업, 일자리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다부처, 다분야 복수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 정책 기반의 사업분류는 시스템상에서 속성값으로 부여되어 관리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수기로 선별되어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황임
 -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별 소요 재정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②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③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 양극화 대응, ④ 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3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 dBrai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실적-결산 정보를 조회 및 활용 가능
 - 사업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사업정보 입력 화면에 6개의 사업 유형별 서식을 선택하여 입력
 - 사업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표준-일반’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R&D, 정보화, ODA, 수지차지원기관, 균특회계 등으로 서식이 나누어짐
- 사업정보 입력 후, 예산요구서에는 기본적인 재정사업 정보 이외에도 구조조정 대상 여부, 정책과제 여부 지원조건, 수행 주체, 기대효과 등 더 상세한 정보가 입력되지만 활용이 어려움
 - 최근까지 DB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형태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한글파일 형식으로 부속파일로 기록되고 있어 그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
 - 한글파일 형식에서 DB 입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미 한글요구서로 탑재된 파일도 DB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주요 정책에 따른 재정사업 유형의 관리는 현재 dBrain+상에서 사업 입력 시에는 선택적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 프로그램 예산의 계층 구조는 필수입력 사항으로 선택형 콤보 항목의 필수 지정으로 입력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사업이나 국정과제 등의 항목은 사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오픈형 항목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임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혹은 국정과제별 재정 소요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및 생성이 필요할 것임

□ dBrain+ 시스템상 재정사업 유형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존재

-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나 메타데이터 입력을 오로지 사업입력담당자 재량에 맡기는 구조이므로 대부분의 값이 지정되지 않고 필수 입력 값만 겨우 입력된 실정임
- 오프라인을 통한 예산안사업 설명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상세 정보가 dBrain+에 총괄적으로 입력·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필요한 사업정보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시스템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유인과 관심이 부족
- 거시적인 관점 및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 결합하고 앞서 언급한 예산순기나, 정책테마별 의미 있는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속성정보나 분류정보가 태깅(tagging)되거나 메타데이터 방식으로 입력 및 관리될 필요성 있음

4 dBrain+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재정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 예산 및 결산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 정보를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재정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dBrain+에 생성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추출 및 집계하여 데이터 저장소(data warehouse)에 적재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표 1〉 재정정보시스템(KOFIS) 구성

메뉴	주요 내용
통합재정통계	재정통계화면 (127개, 통합재정통계(GFS) 포함)
총수입·총지출	
주요재정통계	재정정보원 발행책자에서 제공되는 통계표
예산분석	재정통계화면 (127개, 통합재정통계(GFS) 포함)
결산분석	
재정집행	
자산분석	자산분석(e나라 재산통계) 화면(86개)
과거예결산	과거 시계열 데이터 레포트
커뮤니티	재정자료실, Q&A, FAQ 등 게시판 기능 제공

□ 프로그램예산제도는 기본 구조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유지하되 재정 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를 군집화를 수월히 구현할 수 있는 dBrain+ 시스템으로의 개선 추진 필요

- 재정당국에게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일자리, 안전, 문화, SOC, 국정과제 등 각 속성으로 사업 유형 및 군집화를 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재정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 정보관리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

- 국민에게는 정책, 사업, 수혜자 관련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추출된 재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제공이 가능
- 재정당국 및 전문가에는 각 사업 속성 및 군집화 가능한 속성 제공으로 사업군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재정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재정통계 생산도 가능

□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함

- 정책과 집행통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이 필요
- 재정사업 유형을 속성정보의 설계와 정비를 통해서 쉽게 군집하고자 하는 유형별 통계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시스템적 개선작업이 선행

□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공개를 시작하여 접근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 재정 플랫폼 사이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C/O/N/T/E/N/T/S

요약

I 서론

-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분석 내용 3

II 재정사업 유형 분류 현황

- 1. 프로그램 예산구조 4
 - 가. 프로그램 예산구조 4
 - 나. 기능별 분류 6
- 2. 경제 성질별 분류 11
- 3. 정책 기반 사업분류 13
 - 가. 생활 SOC 15
 - 나. 한국판 뉴딜사업 17
- 4. 기타 18

III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 1. dBrain+상 재정사업 유형 분류 20
 -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시스템 분류 20
 - 나. 정책 기반 사업분류에 따른 시스템 현황 25
- 2. dBrain+ 시스템상 재정사업 유형 관리의 한계 .. 29
 - 가. 재량에 따른 재정사업 속성정보 입력 29
 - 나. 예산 정보 이외 재정 데이터에 대한 관심 부재 .. 30
 - 다. 재정 속성정보 및 메타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부재 31

IV

dBrain+ 시스템의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관리 개선 방안

3. dBrain+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	32
가. 재정정보로서의 집행통계	32
나. 집행 관리의 범위 및 목적	34
다. dBrain+ 시스템의 재정통계 구조	36
라. 재정데이터시스템의 활용	37

1. 재정사업 유형 분류 개선 방안	41
가. 사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41
나. 사업정보 관리 거버넌스 구축	42
2. 집행통계 생산 개선 방안	42
가. 수요자 중심의 집행통계 생산	42
나.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집행정보 관리	43

V

결론

1. 요약	45
2. 시사점	46

VI

참고문헌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정치적·정무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된다. 그러므로 재정사업의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관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상으로 재정사업 유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의 계층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각 재정사업별로 적정한 속성값 체계를 설계하고 그 속성값을 적정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재정관리시스템으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이 2004년 국가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2007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으로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dBrain+상에서 재정사업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속성정보의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전 시스템과 비교하여 속성값이 재정사업 유형 분류에 있어 얼마나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유례없는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시스템의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의 대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의 설정과 같은 새로운 재정정책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정보가 재정정보 및 통계인 것이다. 재정사업 관리에 있어 집행은 정책의 실행이라는 도구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예산

-집행-결산-성과관리라는 재정순기 중에서 집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관리되는데 신속집행과 실집행이 그것이다. 신속집행은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로도 혼용되고 있는데 재정집행을 회계연도 내에 소진하는 데서 나아가 유동성 공급과 경기 활력 부여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 조기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기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실집행은 재정의 집행이 실제 재정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집행은 재정의 효과성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정순기에서 집행이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관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집행통계 및 자료의 생산은 의사결정 적기성 및 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정의 집행통계자료 생산에 있어서는 재정사업의 유형을 필요한 정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군집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확한 재정통계와 정보의 제공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하게 재정사업별로 적정한 속성값의 부여 및 관리가 중요하다. 재정사업의 유형화를 통해 예산-집행-결산이라는 재정순기상의 실적, 집계와 같은 통계자료의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은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시점의 정확한 재정통계의 산출을 통해 정부는 자원배분과 지출구조 등에 대한 재정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dBrain+에서 세부사업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박정수(2019)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기존 dBrain의 사업관리 정보는 세부사업별로 관리되는 사업정보가 체계적이지 않아 그 정확도와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그것이다. dBrain상에서 관리되는 재정사업 정보 및 속성정보 값은 이전 선행연구에 따르면 속성정보의 입력이 사업담당자의 재량에만 의존한 까닭에 약 90% 이상의 사업이 속성값이 미입력된 채로 있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박정수, 2019). 또한 재정사업 관리 정보 중, 사업에 대한 요약 색인정보이자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속성정보가 체계적으로 사업별로 부여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세사업 정보 역시 시스템 기반으로 표준화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박정수, 2019).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기존에 dBrain 시스템의 속성정보의 한계로 지적된 점이 새로운 dBrain+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의 여부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정정보 및 통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정보와 관련된 속성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생산에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상의 사업 속성정보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시스템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첫째, 재정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재정사업의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dBrain+ 시스템상의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dBrain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셋째, 향후 dBrain+ 시스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정보 수요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속성정보 설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재정사업 유형 분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기본 구조는 2007년 도입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dBrain상에도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따라 부문-분야-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준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정통계의 생산 및 재정정보 활용의 기본단위는 세부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별개로 분류기준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및 유형화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실제 재정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사업의 분류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2-1〉 프로그램 예산체계 용어

분야·부문	: 정부기능의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사업
단위사업	: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자 중간 묶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
세부사업	: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재정사업의 기초단위로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

자료 : 열린재정 프로그램 예산구조 설명자료

1 프로그램 예산구조

가. 프로그램 예산구조

재정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사업의 분류는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정보의 활용 및 재정통계 작성과 생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의 세부적인 구분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며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

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정사업은 세입보다는 세출, 즉 재정순기 중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세출예산의 분류방식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의 기본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2004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재정 운용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통제 중심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즉 기존의 품목별 중심의 예산 운용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첫째, 과거 회계·기금 별로 구분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의 재정사업들을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단위 아래 개편함으로써 총체적 재정배분 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으로 묶어 사업의 내용과 성과 파악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20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16개 분야, 74개 부문, 656개 프로그램, 2,767개 단위사업, 8,4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구조

분류구분	분류 중 구분	분류항목 수		
소관별	소관	58개		
회계별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개	20개	67개
기능별	분야	16개		
	부문	74개		
	프로그램	656개		
	단위사업	2,767개		
	세부사업	8,453개		
성질별	목	26개		
	세목	113개		

자료 : 열린재정

1) 재정지출은 소관별로 구분한 후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7조와 제21조에 따르면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dBrain상에서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이처럼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으로 각 사업이 계층화되어 코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을 예시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2-1>이다.

〈그림 2-1〉〈친환경 경제사회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구조 예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
070 환경				
	078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500 친환경 경제사회 활성화		
			1531 친환경산업 육성·지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1532 환경기술 개발·보급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33 환경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특별회계
			1534 출연사업	환경개선 특별회계
			153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료 : 재정의 이해(국경복)

나. 기능별 분류

기능별 분류는 국가 재정활동의 기능을 크게 교육, 국방,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부문으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16개 분야, 74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3〉 재정사업 기능별 분류

010 일반공공행정 980,939억 원	050 교육 841,571억 원		118 창업 및 벤처 11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1A 지식재산일반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2 국정운영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5 정부자원관리 016 일반행정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4 교육일반 060 문화 및 관광 90,975억 원	089 사회복지일반 08A 아동·보육 08B 노인 08C 여성·가족·청소년 08D 고용 08E 노동 08F 고용노동일반	120 교통 및 물류 228,490억 원 121 도로 122 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물류 등 기타
020 공공질서 및 안전 223,183억 원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0 보건 227,126억 원 091 보건의료 092 건강보험 093 식품의약품안전	130 통신 89,920억 원
021 법원 및 헌재 022 법무 및 검찰 023 경찰 024 해경 025 재난관리	070 환경 119,365억 원	100 농림수산 236,823억 원	131 방송통신 132 우정 133 정보통신
030 외교·통일 59,543억 원	075 해양환경 076 환경일반 077 물환경 078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79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7A 자연환경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수산·어촌 104 식품업	140 국토 및 지역개발 51,193억 원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031 통일 032 외교·통상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3,270억 원	150 과학기술 95,513억 원
040 국방 530,189억 원	080 사회복지 1,949,533억 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54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041 병력운영 042 전력유지 043 방위력개선 044 병무행정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3 공적연금 087 보훈 088 주택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17 산업혁신지원	160 예비비 39,000억 원 161 예비비

자료 : 열린재정

이것은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사업을 지출별로 기능을 구분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OECD는 UN이 제시한 정부기능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의하여 10개 분야, IMF는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의하여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GFS의 주요 산출물은 정부운영표²⁾와 현금의 원천 및 사용보고서, 거래의 경제유량보고서, 대차대조표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재정정책의 분석적 측정에 더욱 유용할 수 있는 거시 변수³⁾를 소개하고 있다. COFOG는 총지출 구성의 총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의미하며 이것은 GFS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일반정부 단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상세한 분류라고 정의하고 있다(IMF, GFSM 20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나원희, 2020).

〈표 2-4〉 GFS 기타 거시경제 재정지표

재정지표	의미
재정부담	조세와 사회기여금 형태의 수익(GDP 대비 %)
총지출	비용+비금융자산의 순투자 또는 지출
총지출 구성	총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
정부 최종소비지출	피용자 보상의 근사치 +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 + 고정자본소비 + 가계로의 직접이전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액(주로 현물 사회급여) - 재화와 서비스 매출액
총투자	비금융자산 순취득 = 비금융자산 취득 - 비금융자산 처분

자료 : IMF, GFSM 2001; GFSM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재정통계 매뉴얼, 2014; 나원희, 2020

IMF에 공시된 우리나라 재정통계 중, 앞서 제시한 수익과 비용은 시계열 자료의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나 정부 기능별분류(COFOG)는 총지출만 작성되어 있고 중분류와 소분류 수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재정지출의 효율화 관점에서 본다면 GFS 기준 COFOG를 작성할 경우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가 수월

2) 정부운영보고서는 일정기간의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금원천 및 사용보고서는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운영표로 기업에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와 유사하다. 거래 외 경제 유량보고서는 시장가치 등 가격 변동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않은 사건에 따른 가치변동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IMF, GFSM 2001).

3) 재정부담, 총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 총투자, 총지출 구성 등이 해당된다(나원희, 2020).

해지며 정부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준거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나원희, 2020).

〈표 2-5〉 정부 기능별 분류체계(COFOG)

총지출			
701	일반 공공행정	706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1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업무	7061	주거시설 개발
7012	해외 경제원조	7062	지역사회 시설 개발
7013	일반서비스	7063	수도 공급
7014	기초연구	7064	가로등
7015	일반 공공행정 R&D	7065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7016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7066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7017	공공 채무 거래	707	보건
7018	정부간 일반이전	7071	의료 제품, 기기, 장비
702	국방	7072	외래 환자서비스
7021	군사방어	7073	병원서비스
7022	민방위	7074	공공 보건서비스
7023	해외 군사원조	7075	보건 R&D
7024	국방 R&D	7076	기타 미분류 보건
7025	기타 미분류 국방	708	휴양, 문화, 종교
703	공공질서 및 안전	7081	휴양 및 스포츠서비스
7031	경찰서비스	7082	문화서비스
7032	소방서비스	7083	방송 및 출판서비스
7033	법원	7084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7034	교도소	7085	휴양, 문화, 종교 R&D
7035	공공질서 및 안전 R&D	7086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7036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709	교육
704	경제활동	7091	유아 및 초등교육
7041	일반 경제, 상업, 노동	7092	중등교육
7042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093	중등 후 비고등교육
7043	연료 및 에너지	7094	고등교육

총지출			
7044	광업, 제조, 건설	7095	등급외 교육
7045	운송	7096	교육 보조 서비스
7046	통신	7097	교육 R&D
7047	기타 산업	7098	기타 미분류 교육
7048	경제 R&D	710	사회보호
7049	기타 미분류 경제	7101	질병 및 장애
705	환경보호	7102	노령
7051	폐기물관리	7103	유족
7052	폐수 관리	7104	가족 및 자녀
7053	공해 방지	7105	실업
7054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7106	주거
7055	환경 보호 R&D	7107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7056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7108	사회보호 R&D
		7109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자료 : IMF, GFSM 2014

GFS 기준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701), 국방(702), 공공질서 및 안전(703), 경제활동(704), 환경보호(705),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706), 보건(707), 휴양·문화·종교(708), 교육(709), 사회보호(710)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5~10개의 하위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총 6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 성질별 분류는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과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2022년도 기준 세출과목 구분은 24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92개의 세목이 있다. 동일한 ‘목’을 집계한 품목별 통계는 정부의 구매계획, 민간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기능과 규모 등의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박정수·나원희, 2020).

재정사업을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이전지출 등으로 대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각각의 세목을 부여한 것으로 시스템상으로 고유성질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를 품목별 분류, 비목별 분류라고도 한다. 품목별 예산 분류를 통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고 출연·출자·위탁 등의 수행방식을 구분하여 지출대상과 지급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출통제의 기본으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품목 분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박정수·나원희, 2020).

〈표 2-6〉 재정사업의 경제 성질별 분류

110 인건비 452,231억 원	260 연구용역비 35,005억 원	350 일반출연금 252,731억 원	440 무형자산 684억 원
[01]보수 [02]기타직보수 [03]상용임금 [04]일용임금 [05]연가보상비	[01]일반연구비 [02]정책연구비	[01]기관운영출연금 [02]사업출연금 [03]금융성기금출연금 [04]민간기금출연금	[00]무형자산
210 운영비 284,501억 원	270 안보비 8,397억 원	360 연구개발출연금 279,755억 원	450 융자금 493,283억 원

[01]일반수용비 [02]공공요금 및 제세 [03]피복비 [04]급식비 [05]특근매식비 [06]일·숙직비 [07]임차료 [08]유류비 [09]시설장비유지비 [10]학교운영비 [11]재료비 [12]복리후생비 [13]시험연구비 [14]일반용역비 [15]관리용역비 [16]기타운영비	[00]안보비	[01]연구개발인건비 [02]연구개발경상경비 [03]연구개발건축비 [04]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05]연구개발연구활동비 등 [06]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02]통화금융기관융자금 [04]기타민간융자금 [05]지방자치단체융자금
220 여비 6,988억 원	310 보전금 289,135억 원	410 건설보상비 24,223억 원	460 출자금 102,573억 원
[01]국내여비 [02]국외업무여비 [03]국외교육여비	[01]손실보상금 [02]배상금 [03]포상금 [04]기타보전금	[00]건설보상비	[01]일반출자금
230 특수활동비 2,444억 원	320 민간이전	420 건설비 179,524억 원	490 지분취득비 588억 원
[00] 특수활동비	[01]민간경상보조 [02]민간위탁사업비 [03]연금지급금 [04]보험금 [05]이차보전금 [06]구호 및 교정비 [07]민간자본보조 [08]법정민간대행사업비 [09]고용부담금	[01]기본조사설계비 [02]실시설계비 [03]공사비 [04]감리비 [05]시설부대비	[00]지분취득비
240 업무추진비 1,889억 원	330 자치단체이전 2,164,601억 원	430 유형자산 159,147억 원	510 상환지출 190,284억 원

[01]사업추진비 [02]관서업무추진비	[01]자치단체경상보조 [02]자치단체교부금 [03]자치단체자본보조 [04]자치단체대행사업비	[01]자산취득비 [02]저장품매입비	[03]차입금이자 [08]민간예수금원금상환 [09]민간예수금이자
250 직무수행경비 10,539억 원	340 해외이전 21,371억 원	610 전출금 등 480억 원	710 예비비 및 기타 32,620억 원
[01]교수보직경비 [02]직책수행경비 [03]특정업무경비	[01]해외경상이전 [02]국제부담금 [03]해외자본이전	[05]기타전출금	[01]예비비 [02]예비금 [03]반환금 및 손실금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정책 기반 사업분류

재정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주요 목적은 재정사업을 특정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군집된 재정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시스템상,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준으로 성질별, 기능별로 재정통계를 생산하여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나 집행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업별 분류는 지출계획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 지침적 결산과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21조의 4⁴⁾에 근거해보면 세항의 분류목적은 각 세항별 금액 전용 통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항을 한번 더 세분화하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예산 편성 주기에 따라 차년도의 예산은 전년도 12월까지 작성 및 제출되는 중기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이 되므로 중기 이상의 시계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단위로 볼 수도 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또한 재정사업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박정수·나원희, 202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가장 하부의 사업단위는 세부사업이지만 실무나 편성단계에서는 그 하부의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까지로 일부는 관리되고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정사업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

4)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며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분류를 내역사업이라고도 한다(박정수·나원희, 2020). 개별 내역사업은 세부사업 내에서 원가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또는 개별 법령이 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내역사업은 <표 2-7>에서 볼 수 있다.

〈표 2-7〉 내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주요 사업 및 근거

유형		근거법령	
일반재정	총사업비	국가재정법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 편성 대상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법	제15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다부처 사업	일자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대상
	재난안전	재난안전기본법	제10조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대상
	성인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인지 예산 실시 대상

자료 : 각 법령.

생활 SOC사업, 일자리 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특정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 테마 혹은 국정과제에서 제기된 정책하에서 소관과 부문 분야 등을 통합하여 연관성에 따라 군집화되어 집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반의 사업분류는 시스템상에서 속성값으로 부여되어 관리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수기로 선별되어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년도 예산에 관한 개략적 방향과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발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는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요 정책과제별 소요 재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②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③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신 양극화 대응, ④ 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다섯 가지 큰 정책과제가 그것이다(기획재정부, 2022).

가. 생활 SOC

〈그림 2-2〉 생활 SOC와 기존 SOC사업 비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따른 분류

자료 : 생활 SOC 3개년 계획(관계부처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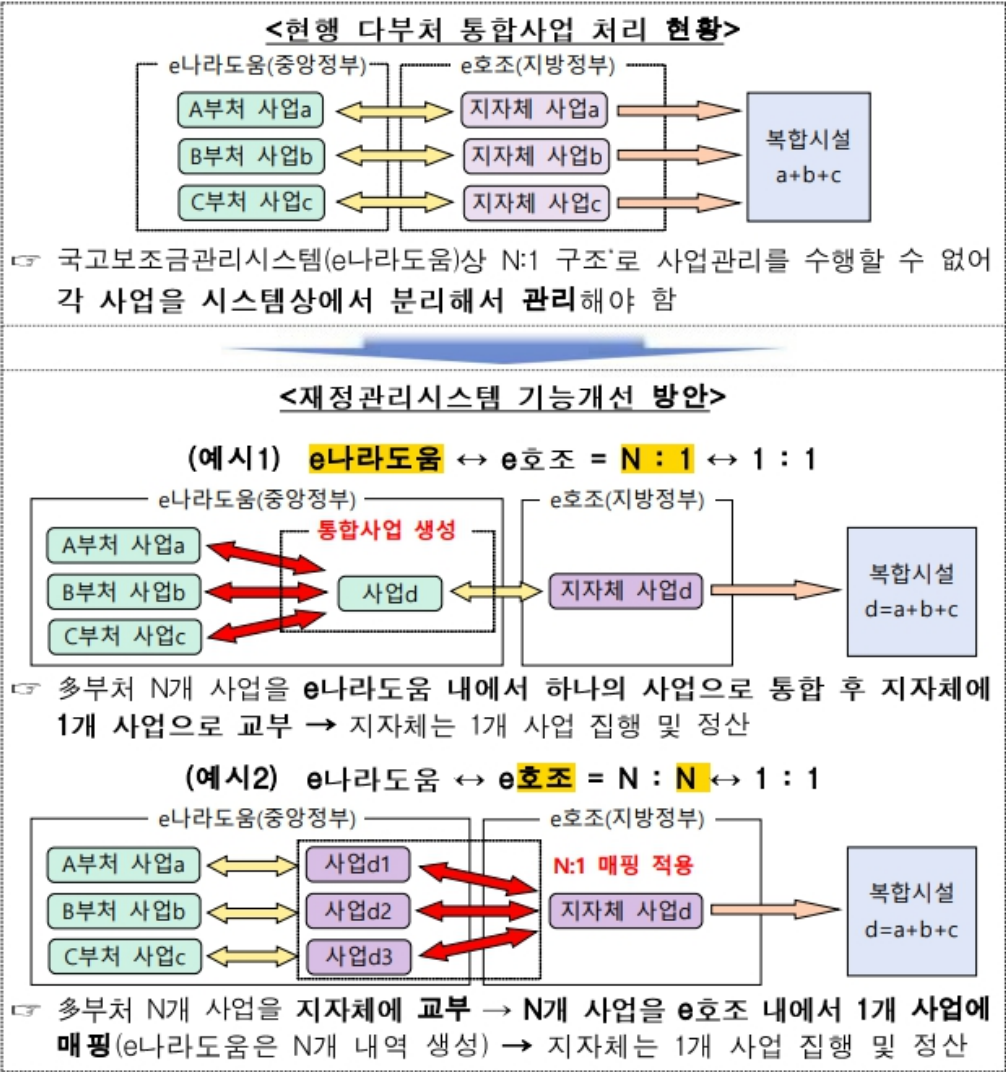
생활 SOC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SOC사업인 국가주도의 산업중심지 개발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 위주의 개발 사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문화, 공공의료, 안전시설 등의 시설 투자 등에 총 48조 3천억 원⁵⁾ 규모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

생활 SOC사업의 경우에도 단일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사업이고 대부분 국비 단독 집행 사업이 아닌 지방비와 보조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그 집행과 정산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부처별 업무협의 및 사업별로 정확히 그 집행의 정확한 구분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은 생활 SOC의 집행과 정산에 관련하여 다부처 사업의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식화한 것이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재정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 재정정보시스템인 e호조와의 매핑 비율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한 부처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생활 SOC사업의 집행을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내역사업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사업을 생성하여 매핑할지 N개의 사업을 e호조로 내려가서 1개의 사업으로 매핑할지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의미한다. 다수의 국고보조사업(N)으로 단일 복합건물 건축 시, 일

5) 국비 30조 원, 지방비 18.3조 원.

팔 단일 계정을 설정한 후에 사업비 비율(1/N)로 일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안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과 e호조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조금 관리 지침의 개정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3〉 생활 SOC 다부처 사업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자료 : 생활 SOC 3개년 계획(관계부처합동).

나. 한국판 뉴딜사업

〈그림 2-4〉 한국판 뉴딜 2.0 재정소요 추계

(단위 : 조 원)

분야		'20추경 ~ '25	
		뉴딜 1.0	뉴딜 2.0
디지털	① D.N.A 생태계 강화	31.9	33.5
	②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2.9	3.2
	③ 메타버스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2.6
	④ SOC 디지털화	10.0	9.7
	소 계	44.8	49조원 수준
그린	①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4.8
	②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12.1	16.0
	③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30.0
	④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6.3	10.2
	소 계	42.7	61조원 수준
휴먼	① 사람투자	4.0	9.3
	② 고용·사회안전망	22.6	27.0
	③ 청년정책	-	8.0
	④ 격차해소	-	5.7
	소 계	26.6	50조원 수준
총 계		114.1	160조원 수준
지역균형 뉴딜		42.6	62조원 수준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2.0 사업설명자료

* 재정투자 계획으로 국비지원 기준임

정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충격으로 발생한 경기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비대면 수요 증가 및 저탄소 친환경 경제 확산 등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년도에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세부적으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로 구성되어 있다.

4 기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및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에 나타나 있다. 주로 사업평가와 같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단계와 연관되어 유형화된 분류로 재정사업을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R&D), 정보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2-8〉 재정사업 유형별 분류기준 및 개념

사업 유형	개념 및 사업예시
검사, 인증, 조사, 연구	검사(심사), 인증 평가, 조사, 연구 등
교류, 협력	국제교류, 국내 및 국제 협력사업, 국제협약대응 및 이행사업 등
교육, 훈련	각종 교육 및 훈련 활동
구매사업	장비, 공구, 기구, 도서, 미술품 등 구입
구조개선	기관 및 사업체의 통폐합 및 이전
기관운영 지원	경상경비 보조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운영 지원
대민서비스 제공 및 지원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 및 해당 서비스 제공비용 지원
방지, 예방, 단속사업	방지, 예방, 단속 관련 활동
보상금, 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보상금 및 인센티브 성격의 보조금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 대한 급부 제공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법정보상 및 보조금과 구분
시설확충, 개선	시설 및 건물, 건축물의 설비 확충(토지매입 포함)과 개선을 위한 사업활동
신용, 융자	신용보증(대위변제), 이차보전, 투자·융자 등
유통, 마케팅	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인력양성, 운영, 활용	특정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운영
자원유지보전	국가기록물, 문화재, 산림자원, 생태계 등의 유지, 보수, 보전, 보존 활동
정책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연구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용역비’ 해당 사업
종합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제공

사업 유형	개념 및 사업예시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조사 결과 제공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예술 공연,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
행정집행	강제적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홍보, 방송	단순 정보전달 또는 의식, 행태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방송 관련 활동
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토목 공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참조

III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1 dBrain+상 재정사업 유형 분류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시스템 분류

앞서 II장에서 논의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를 군집화하여 dBrain+ 시스템에서 생산 및 활용할 수 있다. dBrai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 실적-결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3-1〉 신규세부사업 등록 시 사업 유형 선택 항목

요구양식변경			
세제	세사업	일련	예산일련
A1	표준-일반	일반적인 모든 사업	모든과
A1-PB	표준-중사업비	① 일반적인 중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세부사업 전체 or 모든 내역) ② "중사업비+일반내역 관리대상 내역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	모든과
A2	R&D-일반	일반적인 모든 R&D 사업	연구개발예산과
A2-PB	R&D-중사업비	① 중사업비 관리대상 R&D 사업 (세부사업 전체 or 모든 내역) ② "중사업비+일반내역 관리대상 내역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R&D 사업	연구개발예산과
A2-RH	R&D-물연연구기관	물연연구기관 지원 사업	연구개발예산과
A3	정보화-일반	일반적인 모든 정보화 사업	정보통신예산과
A3-PB	정보화-중사업비	① 중사업비 관리대상 정보화 사업 ② "중사업비+일반내역 관리대상 내역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정보화 사업	정보통신예산과
A4	ODA	ODA 사업	행정예산과
A5	수지차지원기관	해당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기금운용계획과 or 모든과
A6	공목회계-일반	일반적인 국가공정발견특별회계에 속한 사업	지역예산과 or 모든과
A6-PB	공목회계-중사업비	① 중사업비 관리대상 공목사업 (세부사업 전체 or 모든 내역) ② "중사업비+일반내역 관리대상 내역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목사업	지역예산과 or 모든과

① 요구양식 선택기준

☐ 회계 (VS) 과제성격* → 과제성격에 따라 양식 선택**

* R&D, 정보화, 공목, ODA 등

** (예시) 공목+R&D → R&D, 공목+정보화 → 정보화

☐ 과제성격 (VS) 과제성격 → 과제성격의 비중에 감안하고, 소관권 협의 후 최종 결정(세부사업당 1개소만 무조건 예외)

* (예시1) 정보화+R&D → 과제성격 비중 등 감안 협의결정

* (예시2) ODA+다른 과제 → ODA(외교부 협의)로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

* (예시3) 수지차+다른 과제 → 수지차(수지차라는 명칭성 감안)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관리

신규사업 등록 시 세부사업관리자나 소관별 예산담당자와 같은 입력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을 프로그램-단위사업에 매칭시키고 나면 사업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정보 입력 화면에 6개의 사업 유형별 서식을 선택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사업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표준-일반’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R&D, 정보화, ODA, 수지차지원기관, 균특회계 등으로 서식이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사업 유형은 크게는 각 사업의 주관 예산과를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R&D’ 예산의 경우는 연구개발예산과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담당되어 있고 ‘정보화’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예산과에서 소관을 담당하고 있다. ‘균특회계’ 사업은 일반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 R&D, 정보화, 균특회계 사업 유형은 각각 총사업비 세부 유형이 있다.

〈그림 3-2〉 사업 등록 화면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부사업 등록 시 dBrain+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회계-계정-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므로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분야-프로그램-단위사업은 자동으로 선택되는데 이는 〈그림 3-2〉의 화면에 나타나 있다. 사업 등록 관리 화면에서 특정 세부사업을 선택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예산요구서식을 기초로 기본 사업정보가 입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3〉은 세부사업 등록화면으로 세부사업 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하면 정책과제 종류 항목에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R&D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하고 경비별, 지출별 구분과 의무, 재량 사업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림 3-3〉 세부사업 등록 화면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박정수(2020)에 따르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지침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식 재정사업분류체계와 연관하여 세부사업별로 공통 색인을 부여하고 각종 텍스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사업별로 상세 정보와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텍스트 정보가 전산화가 된 자료가 아닌 한글문서 기반의 텍스트 자료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에서 그 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문서 형태가 아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세부사업코드 조회 화면

사업지출구분	사업속성	사업코드	
		시작	끝
일반지출	□ 일반지출	100	799
	□ 인건비 세부사업	100	199

○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부사업은 부처의 자율적 편성과 관리를 위한 재정사업의 단위로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의 가장 하위 단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당국의 실무에서는 세부사업 하단의 내역사업도 일부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일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측면에서 내역사업, 더 나아가서는 내내역사업 단위까지 자체적으로 취합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4〉에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의 세부사업코드를 조회한 화면으로 세부사업별 사업 속성과 각각의 사업코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사업정보 입력 관련 한글 요구서 항목

한글요구서

사업정보입력
요구사항
사업개요
지원금/일/추진경비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따른
통계청장 소유현황
통계청장 소유현황
국회예산 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A1]표준-일반

부	처
회	계 (계 정)
기	회 무 / 계 할
구	조 조 정 대 상 여 부
제	회 회 근 원 근 입 항목
1	2 대 분 이 (부 문)
장	책 과 제

예산년도

구	부	2021년	2022예산	2023예산	총합	비율
예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 사업코드 : 11-11-0-010-014-1100-1131-302
* 담당자 :
본 예산내역에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종사업체			
• (주목)			
• (주목)			
• (주목)			
• (주목)			
• (주목)			
사업규모			
지원조건			
수행주체			
기대효과			

1 / 1쪽 | 1 / 1

재정도서관 | 시정 | 사업담당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정보 입력이 이루어진 뒤에는 예산요구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재정사업 정보 이외에도 구조조정 대상 여부, 정책과제 여부 지원조건, 수행 주체, 기대효과 등 더 상세한 정보가 입력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최근까지 데이터 베이스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형태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한글 파일 형식으로 부속파일로 기록되고 있어 그 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향후 예산순기부터는 한글파일 형식에서 데이터베이스 입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미 한글 요구서로 탑재된 파일도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 정책 기반 사업분류에 따른 시스템 현황

주요 정책에 따른 재정사업 유형의 관리는 현재 dBrain+상에서 사업 입력 시에는 선택적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는 프로그램 예산의 계층 구조는 필수입력 사항으로 선택형 콤보 항목으로 필수 지정으로 입력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사업이나 국정과제 등의 항목은 사업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오픈형 항목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시스템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이루어진 항목에서도 오타자, 적합하지 않은 분류항목 등 오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산화 작업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재정운용 기조의 변경과 이로 인한 재정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단위별 재정사업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혹은 국정과제별 재정 소요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및 생성이 중요하다.

dBrain 시스템상에서 현재 일부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정보관리는 각 사업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업만이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표 3-1〉 국정과제 관련 시스템상 일부 관리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국정과제			1,027
생활 SOC	전략1.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생활 SOC	전략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생활 SOC	전략3.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생활 SOC		① 활기찬 삶을 위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1
생활 SOC		②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10
생활 SOC		③ 골고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생활 SOC		④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	8
생활 SOC		⑤ 따뜻하게 더불어 살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1
생활 SOC		⑥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29
생활 SOC		⑦ 재난재해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구축	24
생활 SOC		⑧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7
R&D	주요 R&D		37
R&D	일반 R&D		-
혁신성장	1. 4대 플랫폼		-
혁신성장	2. 8대 선도		-
혁신성장	3. 추가		-
혁신성장	7. 지역경제활성화		-
혁신성장		1. 4대 플랫폼	-
혁신성장		1-1 수소경제	-
혁신성장		1-2 Data, AI	22
혁신성장		1-3 혁신인재	5
혁신성장		1-4 5G	5
혁신성장		2. 8대 선도	2
혁신성장		2-1 미래자동차	22
혁신성장		2-2 드론	-
혁신성장		2-3 바이오헬스	24
혁신성장		2-4 스마트시티	4
혁신성장		2-5 스마트팜	-
혁신성장		2-6 에너지신산업	2
혁신성장		2-7 스마트공장	-
혁신성장		2-8 핀테크	2
혁신성장		3. 추가	3
혁신성장		3-1 시스템반도체	11
혁신성장		7. 지역경제 활성화	5
혁신성장		7-1 군특사업	5
혁신성장		7-2 지방비매칭사업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혁신성장		7-3 연구시설장비 구축(국비100%)	-
일자리	1. 직접일자리		17
일자리	2. 직업훈련		13
일자리	3. 고용서비스		7
일자리	4. 고용장려금		7
일자리	5. 창업지원		12
일자리	6.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2
사회서비스일자리	1. 노인, 아이돌봄		11
사회서비스일자리	2. 취업지원		4
사회서비스일자리	3. 취약계층		15
사회서비스일자리	4. 환경, 안전		9
사회서비스일자리	5. 보건의료		4
사회서비스일자리	6. 문화, 여가		15
사회서비스일자리	7. 여성, 가족, 청소년		4
사회서비스일자리	8. 생활편의		1
사회적 가치	1. 인권보호		4
사회적 가치	2. 안전환경 유지		18
사회적 가치	3. 보건복지		47
사회적 가치	4. 노동권 보장		5
사회적 가치	5. 기회균등 및 사회 통합		16
사회적 가치	6. 대중소상생협력		3
사회적 가치	7. 양질의 일자리		11
사회적 가치	8. 지역공동체 활성화		18
사회적 가치	9. 지역경제육성		14
사회적 가치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		9
사회적 가치	11. 지속가능한 환경		48
사회적 가치	12. 민주적 의사결정		2
사회적 가치	13. 기타		26
안전	사회재난		5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안전	자연재난	·	75
안전	공통	·	84
국민참여	① 복지	·	8
국민참여	② 사회	·	4
국민참여	③ 경제	·	2
국민참여	④ 일반행정	·	3
ODA	무상	·	-
ODA	유상	·	-
ODA	·	다자	-
ODA	·	양자	-
ODA	·	다자	-
ODA	·	양자	-
정보화	정보화	·	4
정보화	ICT	·	-
저출산/고령화	① 저출산	·	21
저출산/고령화	② 고령화	·	19
홍보비	직접홍보	·	15
홍보비	홍보기획 및 여론분석 등	·	1
홍보비	홍보 이벤트	·	1
홍보비	기타	·	3
행사비	·	·	15
수지차지원	출연	·	-
수지차지원	보조	·	-
한국판 뉴딜	01. 디지털뉴딜	·	135
한국판 뉴딜	02. 그린뉴딜	·	92
한국판 뉴딜	03. 고용·사회안전망	·	35
탄소중립	·	·	109
미래인력양성	·	·	34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추출 가능한 정책 사업에 한하여 추출 및 세부사업 집계

일부 추출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대분류상에서는 생활 SOC, 혁신성장, 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적 가치, ODA 등 17개이고 각각의 정책과제하에 중분류, 소분류로 세부 구조로 계층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세부사업은 총 1,027개이다. '22년 기준 세부사업은 8,453개이므로 추출된 정책과제 베이스의 사업정보가 관리되는 세부사업의 비중은 약 12.1% 정도로 부분적으로 집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 dBrain+ 시스템상 재정사업 유형 관리의 한계

가. 재량에 따른 재정사업 속성정보 입력

기존 dBrain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시스템으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⁶⁾와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⁷⁾를 탑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OLAP과 EIS 등의 통계분석시스템의 내부적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수행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성·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dBrain 시스템의 월평균 접속빈도에 비해 이들 통계분석시스템의 접속빈도가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⁸⁾. 이는 재정 EIS 정보의 경우, 산출되는 주요 재정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별 세부 정보 등이 시스템 외부 정보의 수기작성 등을 통해 입력되고 있는 상황으로 dBrain 시스템을 통한 독자적인 EIS 정보 산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단계 실무에서는 일부 세부사업 하부의 내역사업 단위까지도 편성단위로 논의 되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는 세부사업 단위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실무적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요 대응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내역 사업까지 dBrain+에는 탑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6) 통계분석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시스템으로 운영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가 다양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 수입, 지출, 자금,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결산 등의 정보를 분석차원과 측정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각 중앙부처의 예산 및 회계 결산 실무자 등 사용 가능함.

7) 통계분석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시스템으로 각 소관의 장차관 이상의 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요약되고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재원조달, 재원배분, 집행성과관리, 이슈관리, 지방재정 등과 같은 분류를 통해 국가 재정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비재정통계를 통해 재정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임.

8) dBrain 시스템은 월평균 약 170만 건의 접속빈도를 나타낸 반면, OLAP의 월평균 접속빈도는 약 700여회, EIS는 월평균 160여회 접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한국행정연구원, 2012).

예산편성 업무의 과중함과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과 같이 세부 사업 단위로만 그치게 되었다. 현재에도 실무차원에서는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사업, 소수이긴 하지만 대규모 사업에서는 내내역사업까지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후에는 내역사업 단위로 사업데이터를 탑재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사업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금액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오프라인을 통한 예산안사업 설명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상세 정보가 dBrain에 총괄적으로 입력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서 이력 관리 대상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관심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예산 정보 이외 재정 데이터에 대한 관심 부재

현재 dBrain+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활용되고 있는 정보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결산 정보와 같은 집계된 수치 정보이다. 사업별 재정 수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통계정보 생산에 있어서도 단순 집계, 분석 수준의 통계 수치 제공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dBrain+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dBrain+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다차원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집계를 넘어서 분석에 유의미한 변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 속성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정당국에서 많은 빈도로 활용하는 자료는 사업별 집행률이나 집행액 등의 집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메타데이터에 관심을 덜 보이고 있으며 필요한 사업정보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유인과 관심이 부족하다. 집계된 수치를 활용한 단순 사업 집행 재정통계 또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거시적인 관점 및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 결합하고 앞서 언급한 예산순기나, 법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국정과제별, 정책테마별 의미 있는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속성정보나 분류정보가 태깅(tagging)되거나 메타데이터 방식으로 입력 및 관리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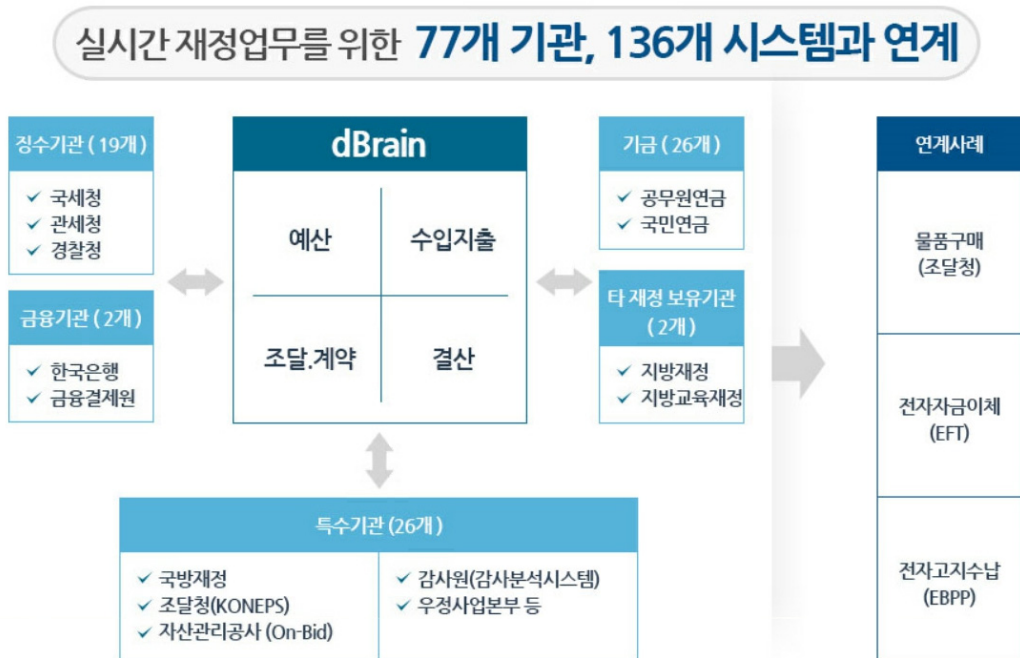
다. 재정 속성정보 및 메타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부재

사업정보 및 속성정보에 관한 입력과 관리가 오롯이 최초의 사업 담당자 및 예산 담당자의 재량 및 성향에만 의존하게 하는 현 시스템상의 관리체계로는 양질의 속성정보 및 사업정보가 메타데이터로서 구축되기 어렵다. 이미 기존의 고유 업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나 강제 장치 없이 자발적인 입력자의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행태를 개선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이미 박정수(2019)의 분석보고서에서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사업별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존재하게 된다면 입력된 사업정보의 검증 및 유효성 확보도 가능하며 기존 미입력 사업정보에 대한 추가도 가능할 것이다.

명확한 근거와 지침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는 재정당국의 행정행태에 따라 보면 현재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정보, 성과정보, 총사업비 정보 등의 단위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정보 입력은 명확한 가이드나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환경이었다. 하지만 이를 전환해서 적용해 본다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단위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사업정보를 재정사업의 메타데이터로서 입력의 의무를 법령과 같은 근거와 지침에 의해 설정한다면 입력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사업에 입력률만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 입력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필요도와 재정통계 생산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속성정보를 엄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세부사업당 지나치게 많은 속성정보 입력을 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입력 정보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력을 요구할 속성정보 수준과 양에 관한 치밀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정보 시스템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는 사업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등록 및 관리하도록 일부 항목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박정수, 2019).

가. 재정정보로서의 집행통계

〈그림 3-6〉 dBrain+ 재정업무 연계도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설명자료

재정 투입 및 집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정부의 역할이 점증적으로 확대 및 다양한 기능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분석의 중요성을 갖는다. 한정된 재정자원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투입과 산출,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이 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옥동석·배근호, 2001). 재정정보를 활용한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예산서나 결산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집계적 수치결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산 통계나 결산 통계의 경우에는 집행 이전

과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실시간 정보로서의 성격은 집행통계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이다. <표 3-2>는 열린재정에 공개되어 있는 중앙정부 수준의 재정통계 목록을 대분류-중분류 수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주요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 월간재정동향, 통합재정통계, 재정보고서 등 5개 대분류하에 각각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중분류하에는 총 156개의 소분류 통계로 집계되어 공개되고 있다.

〈표 3-2〉 중앙정부 재정통계 목록

주요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	월간재정동향	통합재정통계	재정보고서
재정수입	예산	수입	86 GFS	예산개요
재정지출				
재정건전성	집행	지출		결산개요
세계잉여금				
지방재정조정	결산	채무	01 GFS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금별 운용현황	국가채무	수지		
분야별 프로그램				

자료 : 열린재정

재정통계는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의 재정통계의 경우 주로 통합재정 통계는 재정사업 전체를 집계하여 수치로 산출한 정보가 그 대상으로 국제적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예산과 결산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법과 예·결산 작성 지침이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항으로 이어지는 분야-부문-프로그램은 소관별, 회계·기금별로 작성되는 예산, 결산 통계정보는 입법부 심사의 대상이므로 명확한 관리 지침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사업의 수준으로는 통계의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관리와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⁹⁾가 미약하여 사업 속성정보도 충실하게 입력되지 않은 실태이며 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9) 물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분하여 매일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세부사업” 단위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역시 이러한 기준과 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처별, 사업담당자별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집행 관리의 범위 및 목적

재정에서의 집행은 의회에서 의결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에 관련된 공권력의 작용 총체를 뜻한다(국경복, 2015). 국가재정법 제97조¹⁰⁾에 따르면 재정집행관리란 결국 사업집행 및 예산·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절은 예산의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이를 근거로 “집행통계”의 범주에 관한 설정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집행은 예산-집행-결산으로 구성된 1년의 회계연도의 재정순기의 일부분으로 거시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재정순기로서의 “집행”은 다시 배정-전용·이용-이월을 미시적으로 범주로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3조~제48조까지가 이와 관련한 법령이다. 그리고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이며 제50조는 총사업비의 관리이다. 제51조~제52조는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령이며 제53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54조는 보조금의 관리, 마지막 제55조는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으로 집행의 범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재정통계 내 집행통계 세부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역	통계생성기관
상세 재정 통계	집행	수입	월별 수입징수 상황	기획재정부
		지출	월별 지출집행 상황	기획재정부
			월별 지출운용 상황	기획재정부
			일별 지출운용 상황	기획재정부
		집행실적	소관별 주요 관리 대상 사업 집행실적	기획재정부
			공공기관별 주요 관리 대상 사업 집행실적	기획재정부

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 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역	통계생성기관
주요 재정 통계	재정 지출	총사업비	총사업비 현황	기획재정부
		분야별	분야별 자원배분(총지출기준)	한국재정정보원
		성질별	성질별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소관별	중앙관서별 총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의집행 (총지출 기준)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회계·기금별 집행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회계·기금별 불용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이월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불용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집행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성질별 집행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이월의 성질별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불용성질별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유형별	인건비 편성사업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기본경비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본예산 기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자본지출 현황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출자금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융자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이차보전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출연금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분야별 출연금 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의무·재량별	의무·재량지출규모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총지출	재정지출 추이 (본예산 총지출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회계·기금별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	한국재정정보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역	통계생성기관
			(총지출 기준)	
			기금성격별 운용 규모 (총지출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사업성 기금운용 규모 (총지출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기금운용 구분별 운용 규모(총지출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 열린재정 데이터로 저자 재작성

〈표 3-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열린재정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통계에서의 집행통계는 중앙정부 기준, 주요재정통계와 상세재정통계에 약 38개로 생산되어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세재정통계에서의 집행통계는 수입과 지출, 집행실적으로 나누어 집계되어 있는데 특히 집행실적에서는 소관별 공공기관별 주요 관리 대상 사업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dBrain+ 시스템의 재정통계 구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이체, 국유재산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한 재정정보시스템(FIMS : Fis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다.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업무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에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어 dBrain+로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dBrain+ 시스템 하부 모듈은 개별 업무 담당자가 해당 모듈의 관련 화면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 형태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박정수·나원희, 2020).

〈그림 3-7〉 dBrain+ 시스템 구성



자료 : dBrain+ 설명자료(한국재정정보원)

dBrain+의 시스템은 〈그림 3-7〉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외부 기관 시스템에서의 재정연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16개 카테고리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KOFIS, KORAHS, KODAS, 열린재정 등의 4개의 재정데이터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dBrain+의 재정통계 기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월별 통합재정수지의 관리와 연간 통합재정통계 작성 공표와 같은 통합 재정통계 작성과 재정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재정데이터시스템 내의 통계서비스가 그것이다.

라. 재정데이터시스템의 활용

KOFIS(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는 dBrain+가 구축되면서 추가된 시스템으로 KORAHS와 함께 재정데이터시스템 중 하나이다. 예산 및 결산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 정보를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재정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dBrain+에 생성

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추출 및 집계하여 데이터 저장소(data warehouse)에 적재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KOFIS에는 OLAP 솔루션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Grid 형태의 통계자료, 정형통계, 비정형통계, RAW data, 그래프, 차트 등 시각화 통계, GIS를 연계한 지도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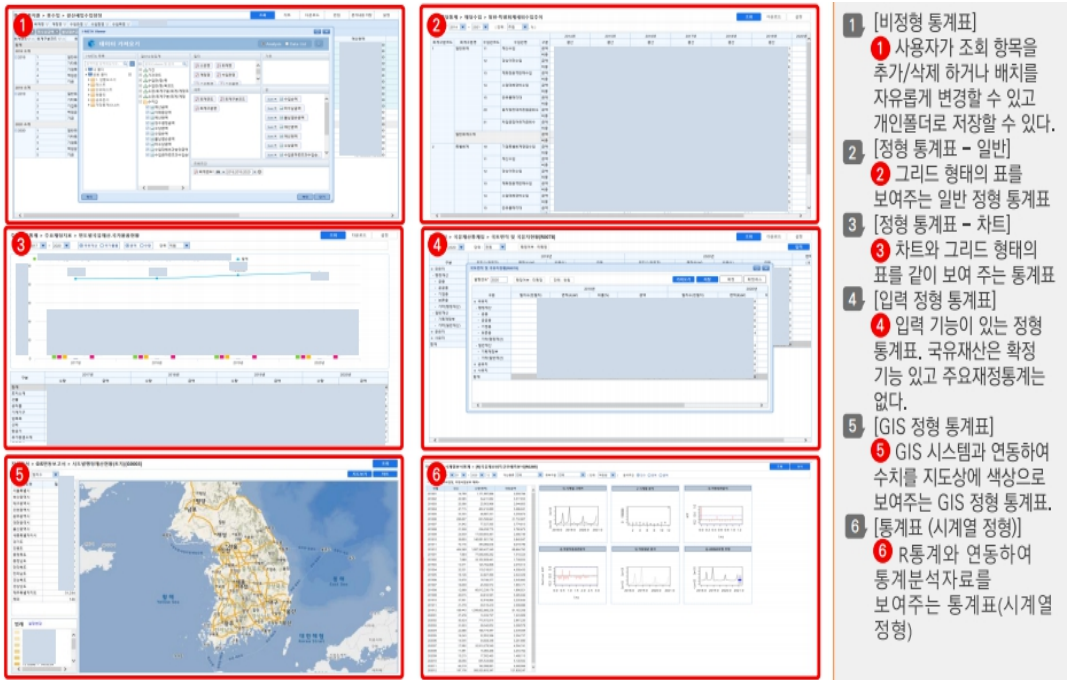
〈표 3-4〉 재정정보시스템(KOFIS) 구성

메뉴	주요 내용
통합재정통계	재정통계화면 (127개, 통합재정통계(GFS) 포함)
총수입·총지출	
주요재정통계	재정정보원 발행책자에서 제공되는 통계표
예산분석	재정통계화면 (127개, 통합재정통계(GFS) 포함)
결산분석	
재정집행	
자산분석	자산분석(e나라 재산통계) 화면(86개)
과거예결산	과거 시계열 데이터 레포트
커뮤니티	재정자료실, Q&A, FAQ 등 게시판 기능 제공

자료 : KOFIS 운영자 매뉴얼(한국재정정보원)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KOFIS에서 집행통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집행’ 메뉴에 있는데 각 통계 메뉴는 통계표와 차트 형태로 가공 및 조회가 가능한데 현재 KOFIS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그리드 형태의 통계표를 보여주는 정형 통계표와 사용자가 항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비정형 통계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3-8〉 KOFIS 제공 통계표 예시



자료 : KOFIS 사용자 매뉴얼(기획재정부)

KORAHS(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는 정책상황관리시스템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 상황 관리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dBrain+에 KOFIS와 함께 재정데이터시스템으로서 구축되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일일경제상황, 정책지표 임계상황, 정책지표 모니터링, 정책지표 통계분석, 정책 상황판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 제공 서비스 현황은 〈그림 3-9〉에 나타나 있다.

〈그림 3-9〉 KORAHS 제공 서비스 현황

정책상황관리 (KORAHS) 서비스	• 일일경제상황 : 일일 주요 경제지표를 총괄표, 금리, 국내주가, 환율, 국제금리·해외주가·가산금리, 유가·곡물·원자재, 반도체 등 6개 지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괄표 및 차트로 시각화하여 현황 조회
	• 정책지표 임계상황 : 정책지표 주기 기준으로 11개 임계지표 산정 유형에 매핑하여 산정된 임계치에 대한 관심, 주의 상태 모니터링
	• 정책지표 모니터링 :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4개 분야 정책지표에 대해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
	• 정책지표 통계분석 :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4개 분야 정책지표에 대해 Drag&Drop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분석항목 재배치를 통한 통계 분석
	• 정책 상황판 :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등 4개 카테고리 주요지표에 대해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

자료 : KORAHS 사용자 매뉴얼(기획재정부)

KORAHS의 주요 기능은 주요 지표들의 값이 임계치를 설정하여 관심과 주의상태를 대시보드의 형태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일일경제상황 화면에서는 국제경제지표, 물가지표, 산업시황 관련 지표, 환율 등의 미시적, 거시적 지표를 기존의 통계솔루션 등을 탑재하여 총괄표 형태 및 차트로 시각화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정책지표 임계상황 항목에서는 정책지표를 12대 분야를 기초로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노인, 노동, 인구, 지역통계 등 11개 부문의 임계지표 산정 유형에 매핑하여 개인이 각각 설정한 임계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지표 모니터링 화면에서 앞서 언급한 정책지표의 통계분석 및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 상황판에서는 인구, 민생, 대외변동성, 일자리 등 4대 영역의 주요 지표에 관련한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외부 경제 사회 지표를 탑재함으로써 재정지표와 함께 재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IV

dBrain+ 시스템의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관리 개선 방안



1 재정사업 유형 분류 개선 방안

가. 사업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앞서 dBrain+ 시스템에서의 재정사업 유형 분류가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에만 국한되어 설계가 이루어져 예산 및 재정집행통계분석에 있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논의되었다. 국가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본 줄기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도 유지하되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의 군집화를 수월히 구현할 수 있는 dBrain+ 시스템으로의 개선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재정당국에게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일자리, 안전, 문화, SOC, 국정과제 등 각 속성으로 사업 유형 및 군집화를 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dBrain+ 시스템상에서 재정사업의 유형 분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사업 정보와 속성값이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dBrain+상에는 하부 구조로 사업관리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담당자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선택적인 항목으로 인하여 90% 이상의 재정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거나 공란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부수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사업정보시스템이 아닌 재정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정보관리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재정당국 및 전문가는 각 사업 속성 및 군집화 가능한 속성 제공으로 사업군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재정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재정통계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책, 사업,

수혜자 관련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추출된 재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나. 사업정보 관리 거버넌스 구축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민과 재정당국 등의 재정정보 수요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관리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부여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정통계의 수요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단일 부처 사업만이 아닌 다부처 사업으로 기금이나 프로그램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각 재정사업을 유연하게 유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구축하여 사업 메타데이터로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2 집행통계 생산 개선 방안

가. 수요자 중심의 집행통계 생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집행통계는 월별, 분기별, 연간 집행을 집계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분야별 정도로 세분화는 되어있지만 집행정보의 방대함에 비해 그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dBrain은 실시간으로 재정 출납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매우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이 자체로 재정정보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집행데이터를 활용한 집행통계는 개별 사업별로 집행을 관리하거나 전체 재정의 운용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재정의 규모가 점증적이고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따라 다부처 및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서도 일부 내역사업으로 군집화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집행통계는 현재의 시스템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과 집행통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이 필요할 것이며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재정순기 중 재정집행 단계에서 국고금 운용 및 수입지출 관련 통계, 국유재산 관련 통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기조에 따라 국가 채무

와 채권 관련 통계 등을 관련 담당자나 수요자가 필요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사업 유형을 속성정보의 설계와 정비를 통해서 쉽게 군집하고자 하는 유형별 통계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시스템적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 dBrain+ 재정순기 흐름도



자료 : dBrain+ 설명자료(한국재정정보원)

나.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집행정보 관리

dBrain+가 구축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의사결정 도구를 넘어서 시스템으로서 KOFIS, KORAHs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와 보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경제, 사회 지표들을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결합을 시도해본 것으로 단순히 지표를 카테고리화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수준을 넘어서 임계치를 설정하도록 하여 위기경보의 기능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KOFIS와 KORAHs 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접근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당국 공무원 중심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체는 국가의 실시간 입출납 데이터가 기록되어 정보의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폐쇄성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데이터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를 일부 연동하는 하위 정보처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폐쇄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재정데이터시스템의 공개를 시작하여 접근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현재 KOFIS와 KORAHs를 비공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일부 분이고 dBrain+ 재정정보가 일부 연동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의 상당수는 가공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열린재정”이라는 재정포털사이트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일부 기능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주문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KORAHs의 여러 경제 사회적 영역 내의 비 재정 지표들은 통계청의 KOSIS라든지 한국은행의 ECOS 사이트 내의 데이터와 연동되는 것으로 이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공개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독립적인 디지털 재정 플랫폼 사이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정포털 “열린재정”에 KOFIS의 분석기능과 KORAHs의 국제, 경제, 사회적 지표를 결합하는 형태로 운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1 요약

정부는 정치적·정무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행된다. 그러므로 재정사업의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의 성과관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의는 이처럼 정치적 논의가 국정과제와 같은 정책으로 입안되어 재정사업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재정통계로 분석하고 재정사업의 유형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dBrain+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정사업들에 대한 사업 속성정보들은 여전히 입력자의 재량에 맡겨진 채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의에서는 실제 dBrain+상의 세부사업별 사업정보입력 내역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당국의 사업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최초 재정사업 입력자의 재량에만 대부분 항목을 일임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재정 속성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 관리 거버넌스의 부재 등을 재정사업 유형 분류의 다양성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중심의 재정사업 정보 관리 구조에서 재정정보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중심으로도 추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순기상, 재정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집행정보를 활용한 통계의 원데이터로서는 사업별 집행정보도 중요하지만 국정

과제나 당면한 정책과제에 따른 군집된 사업군의 집행 정보가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책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성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다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 데이터로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dBrain+상의 재정사업별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 속성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 혹은 지정하여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정보와 같은 재정사업별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사업정보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혹은 신설하여 관리 책임과 속성정보의 설계 및 주기적 업데이트와 속성정보의 신뢰성과 정합성 점검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전담 관리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박정수(2019)의 관련 보고서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dBrain+가 구축이 된 현 시점에서도 사업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 및 구체적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사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운영된지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2022년에는 dBrain+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에서도 재정정보 공개 측면에서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KSP 사업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본 논의는 집행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정사업 유형 분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서 시작되었다. 국정과제나 정책 사업을 위주로 필요한 재정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프로그램 예산구조 베이스로 짜여 있기 때문에 사업 속성 및 사업 정보를 메타데이터화하여 구축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 도출하는 시사점은 크게 재정사업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시스템화와 집행통계 생산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재정사업정보시스템은 속성정보와 사업정보를 망라하는 메타데이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도화 및 체계적 재

설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지속적 관리와 입력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담 조직을 지정할 것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집행통계 생산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사업 및 국정과제와 같은 수평적이면서 범 부처적인 사업분류와 군집을 통해 생산하고 재정데이터시스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개와 고도화를 통해 이른바 디지털 재정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함을 도출하였다.

향후에도 dBrain+가 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그 기능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진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당국의 예산정보시스템이 아닌 예산-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순기 전반의 정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사업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및 전담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활용이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속성정보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재정정보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경복(2015), 재정의 이해, 서울 : 나남.
- 국무조정실(2019), 생활 SOC 3개년계획(안).
- 구형수·이다예·박정은(2019),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2016), 재정사업평가와 사례.
- 기획재정부(2021),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 기획재정부(2021), 한국판 뉴딜 2.0 사업설명자료.
- 기획재정부(2022), 2022 나라살림 예산개요.
- 나원희(2020),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한국 재정정보원.
- 박정수(2019),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방안, 한국재정정보원.
- 박정수·나원희(2020),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 옥동석·배근호(2001), 재정정보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461-479.
- 한국재정정보원(2022), KOFIS 운영자 매뉴얼.
- 이민호(2013),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IMF(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s and Guides.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발 행 인 박 용 주 한국재정정보원장

작 성 인 김 민 경 부연구위원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 S B N 979-11-91094-17-6

